

## The Keyword VII

### '통찰력' (Insight) - 답답한 문제를 뚫어내는 통찰력의 힘

---

#### 1. 믿음의 사람 - 성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사는 현실에서 믿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확신'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얼마만큼 확실히 믿느냐에 대한 것이다.

[로마서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18]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visible and invisible,~)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한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태초의 아담처럼 영의 호흡을 하는 '생령,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첫 인식이 바로 '세계관'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 또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말씀을 보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2. 속사람의 풍성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보이는 땅의 세계관의 차원을 넘어선, 고차원의 세계관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눈이 떠지는 것이다. 사울이 그 예이다.

[사도행전 9:17-18]

17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18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에베소서 1:17-18]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울이 뒤집어진다. 그리고 시력을 잃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17절에 보니 시력이 회복되는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변화는 보는 것의 변화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에베소서 1:17-18의 고백이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계시'라 한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즉, 예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내면-속사람'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삶)

누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속사람이 부자(풍성한, 부유한, 여유있는, 넉넉한)'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3. 영적생활의 단절

오늘 내 신앙의 레벨을 어디에서 측정할 수 있는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여지는 '삶의 태도'에 나타나 있다. 보여지는 삶의 태도를 통해 속사람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다. 보이는 선악과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에덴동산의 아담.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부터 온 실재적 결과이다. (분노, 수치, 비판, 죄책감)

신앙이 있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어도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

### 4. 통찰력 - 적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해결없는 굴레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성도들에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하나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래서 땅의 방법으로 살게하는 것이다. 땅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순위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문제에 함몰되게 한다. 문제는 묶는 힘이 있다. 수렁과 같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늘의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뚫어내고 통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동의 원인이 되는 '생각'의 영역을 뚫어내는 '통찰력'을 말한다.

통찰력이란? 사물을 뚫어보는 능력이다. 생각의 영역안에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생겨난 것이다. 그 순간 돌파가 이루어진다.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해결책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통찰력이 있어야 믿음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5. 믿음의 사고 - 여호수아, 갈렙 (디자인)

#### 1) 밭의 사고

[민수기 14:8-9]

8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밭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2) 메뚜기 사고

[민수기 13:33]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가나안 정탐의 본질은 민수기 14:8절이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다. 그런데 두 가지 사고방식이 생각의 영역안에 그려진다는 것이다.

- \* **여호수아와 갈렙** :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의 밥'으로 이미지화.
- \* **다른 정탐꾼** : 자신을 '메뚜기'로 이미지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사고로부터 온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 믿음의 사고의 공간을 열어 버린다. 그리고 그 곳에 눈에 보이는 사고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그려 버린다. '밥'이라 말한다. 놀라운 순간이다.

반대로 나머지 정탐꾼은 보이는 대로 말한다. 거인을 보았고, 그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신을 '메뚜기'로 여겨 버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영적세계의 능력은 이 땅의 사고방식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지화 한다는 것은 '디자인'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의 설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강력한 사고 방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있는 하늘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모든 저주의 생각, 육의 생각, 땅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진다.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지식과 이성의 노예가 된다. 끝이 알 수 없는 싸움에 함몰된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구하라.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정렬시키고, 그 뜻이 해답임을 신뢰하라. (믿기 어려우면 예수님을 보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려지는 디자인대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